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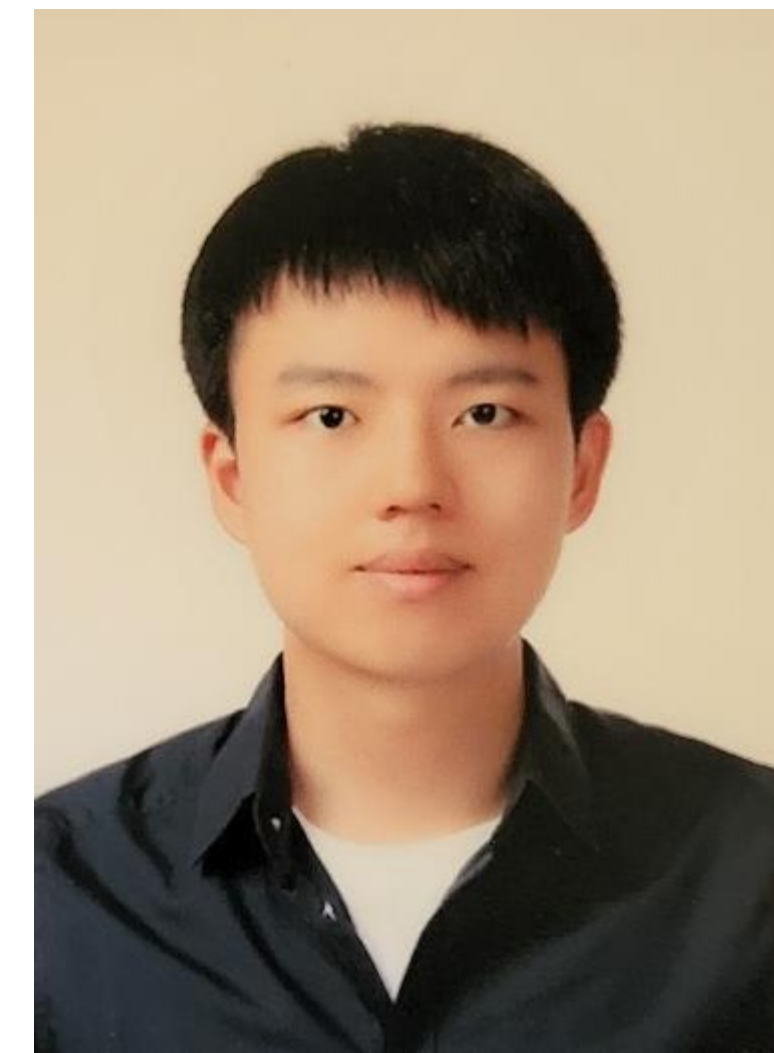
자기소개

박건

Geon Park, 20170233
geon.park00@kaist.ac.kr

자기소개

- Park Geon
- 99.10.27 (현 23세)
- 서울 은평구에 살다가
- 2017년부터 카이스트 거주 중
- 대학 5년, 군대 1년 반, 2024년 2월 졸업예정



- 좋아하는 운동 : 달리기
 - 요즘 안해서 증량중
- 좋아하는 게임 : 티슈
- 수학 동아리에서 배운 것 : 마작
- 요즘 배우는 언어 : 스페인어
- 야구 응원팀 : 두산 베어스
- 최애 빵 : 성심당 먹물방망이
- 매스컴 출연 횟수 : 0회
- 정보보호개론 데자와 수여 횟수 : 2회 (만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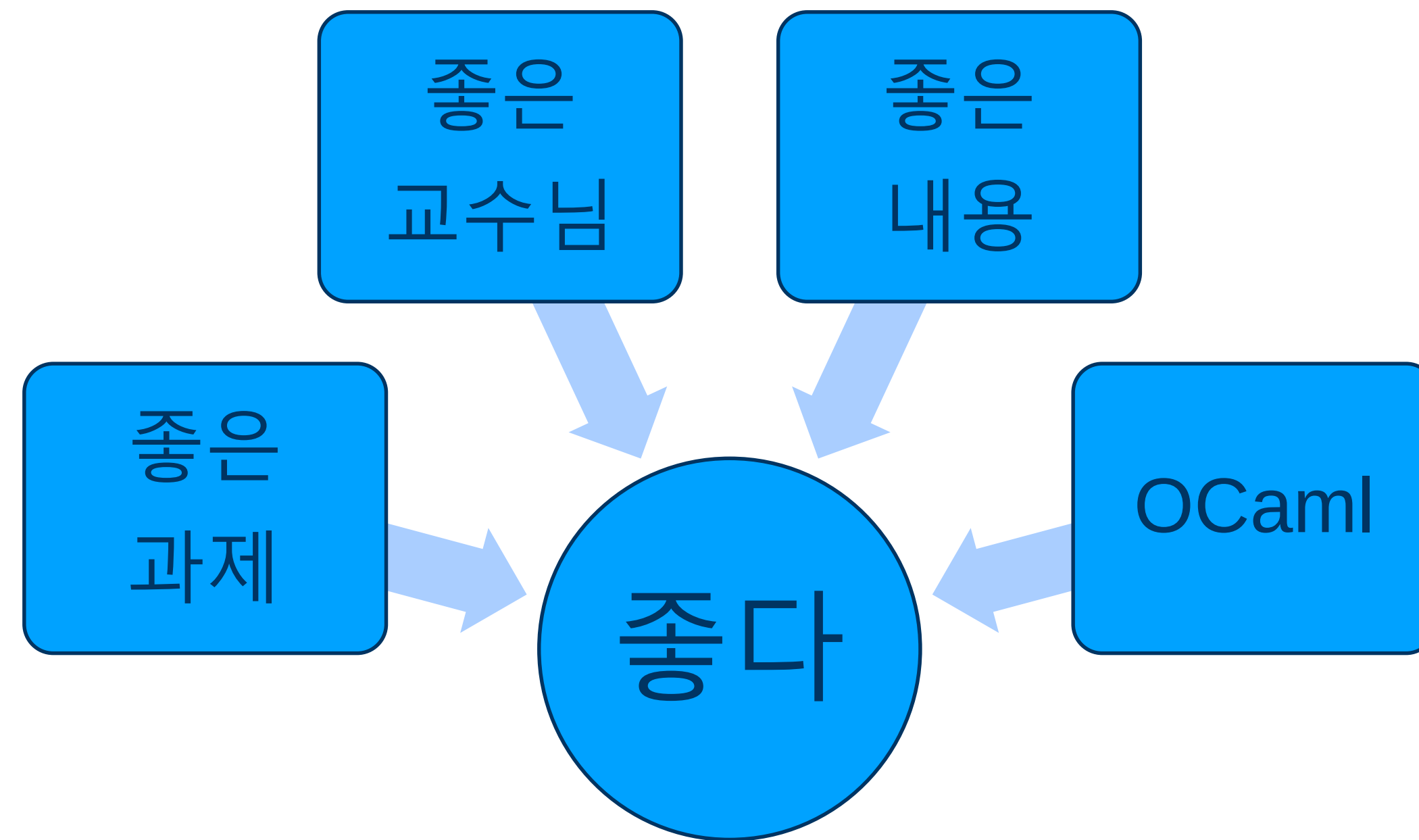
배우던 거

수학 전공, 전산 복수전공

- 이산수학 – 중학 수올에서 좋아하던 분야
- 전산논리 – 수학동아리에서 많이들 듣길래 들어봤더니 재밌어서..
- LLVM – 컴파일러 설계 과목에서..
- 정보보호 – 정보보호 개론 과목에서..

정보보호개론

- 마구실행기(Fuzzer) 과제
- 허기홍 교수님
- 보안의 기초
- OCam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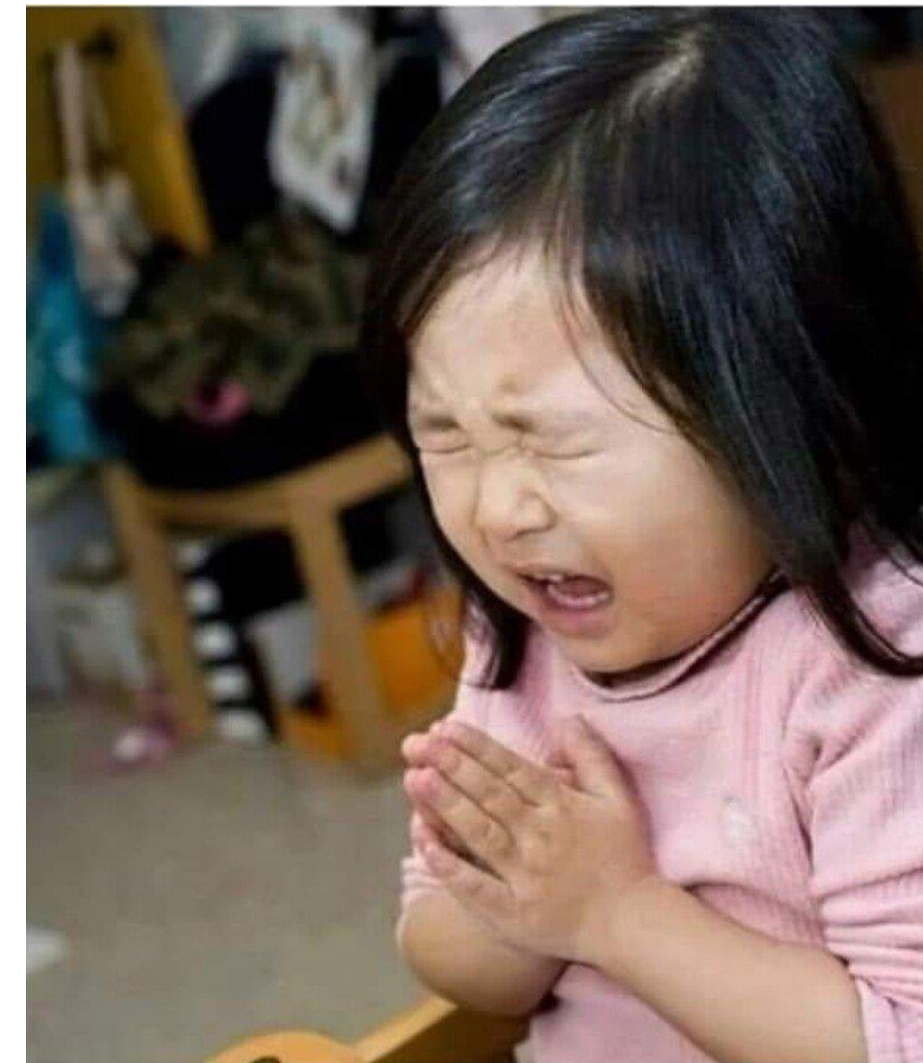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간절함 (연구의 원동력)

소중한 청춘을 왜

다른 것 (예: 취직, 창업, 세계일주 등) 이

아니라 연구에 바치는가?


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간절함 : 소중한 청춘을 왜 연구에 바치는가?

- 내 꿈을 고려해 볼 때, 합당한 선택.
- 나의 꿈 : 수학 분야 중 재능과 재미가 있는 곳을 찾고 이름을 남길 연구자가 되자
- 재미를 찾은 곳 : 이산수학과 그래프이론의 문제에서 귀납 논증
- 세상에 기여할 연구 : 안전한 소프트웨어에 기여, 새로운 시각 제공
- 단, 연구할 시간에 다른 일 (예: 세계일주)을 할 수는 없음.
 -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.
- 지속적, 근본적 가치 제공 : 연구자 다운 전문성,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력
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호기심 (연구의 돌파력)

우리 주변에서 꼭 해결해야
할 문제, 으레 그러려니 하는 문제,
다들 쉬쉬하고 있는 SW 문제는 무엇인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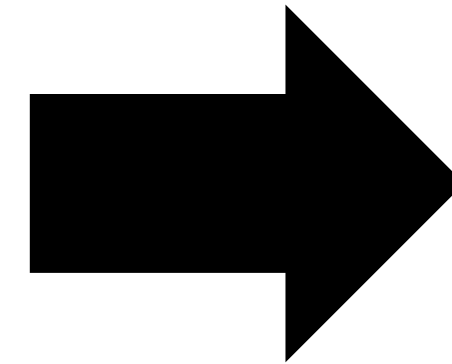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호기심 (연구의 돌파력)

- 충분히 유용하지가 않다, 불편하다
 - KAIST 웹 보안 취약점 제보 과제 중...
 - 왜 이런 오류는 개발 단계에서 숨겨지는지?
 - 안전을 증명하는 방식은 어떤지?
-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먹이고
- 컴퓨터를 부리는 데 성공하고 싶다
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-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진 분이면 좋습니다.
 - 프로그래밍 언어, 정보보호개론, 프로그램 논증, 프로그램 분석,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고, 더 깊은 이해와 응용,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분
 - SW가 품고 있는 수학적 원리에 관심이 많은 분
 -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 (KAIST 프로그램의 이해, 프로그래밍 언어 과제를 무리 없이 하는 수준이면 충분)
 -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코드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
 - 실제 세계에서 돌아가는 SW시스템을 만들기 즐기는 분



혹시?
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맷집 (연구의 지구력)

내가 여기서 쓰러질것 같냐?



간절함, 호기심, 맷집

맷집 (연구의 지구력)

- 심폐지구력은 좋은데..
- 이산수학 과목들을 들었기 때문에 노가다와 칠전팔기에 익숙
- 연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과제연구를 좀..
- 연구 지구력에 있어 나에게 부족한 건...

수학특론<고급 그래프이론> 김재훈 2020 봄

로드는 C 정도입니다. 객관적인 사실일 뿐, 나쁜 건 아닙니다.
많이 고민할수록 많이 배워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

강의는 렉처 노트를 직접 만드는데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.
렉처 노트 프린트하고 강의 들으면서 같이 보면 매우 좋습니다.
이렇게 했더니 증명은 금방 까먹게 돼서 필기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추측합니다.

과제는 자신에 잠재된 수학파워에 따라 시간이 갈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로드를 시간 단위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

하지만 10개의 과제 중 대부분이 두 자리 수일 겁니다. latex으로 옮겨 적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, 어쨌든 옮겨 적는 시간 빼고 두 자리수. 십의 자리는 과제물마다 종종 다릅니다. 쉬운 과제물의 경우는 7시간만에 다 풀기도 하고, 제일 어려운 과제물의 경우는 40시간을 넘겼습니다. 하지만 들으시는 분의 '실력'에 따라 충분히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저는 그렇게 수학과에서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닙니다. 요령껏 어떻게든 푸시면 됩니다.

각오

이번이 첫 전산 ‘프로젝트’

- 과목 과제도 따지면 더 있지만..
- 어떻게 연구과제를 찾고 연구를 하는지 많이 배워야



출처
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
- **Kihong Heo - Recruit**
- <https://kihongheo.kaist.ac.kr/recruitment.html>

Special Thanks to..

